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가

차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브레이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자신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있었던 일이다. 만원버스가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마구 달리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당황하여 어쩔 바를 모르고 차는 흔들리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친다. 마침내 차는 수십 바퀴 굴러서 천 길 낭떠러지 다리 밑에 팡! 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어떤 차는 멈추지 못하여 수십 길 되는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다. 또 어떤 차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속삭이며 다니는

인도로 미치광이처럼 뛰어들어 어린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깔아 죽이기도 하였다.

차에 차 브레이크가 있듯이 사람에게에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만약 이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무너지거나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본다.

통제 불능의 제멋대로 사회가 될 것이다. 남에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인 사회가 될 것이다.

먹고 입고 쓰는 거머 질서고 체면이고 예절도 있을 리 없다. 강한 자의 세상이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당하는 세상, 약한 자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 무질서가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무례함이 판치고 세상. 폭력과 도적 살인이 끊이지 않는 동물 이하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 뒤집기, 정관유착과 전관예우,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각종 탈세 탈루, 표절과 위조, 각

양심 브레이크

종 보험사기, 남의 농작물 싹쓸이, 쓰레기 무단투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무지 마 사건사고.

어디 이뿐이라. 길을 걷다보면 눈을 찌푸리게 하는 소소한 것들도 곧잘 접하게 된다.

차장 밖으로 휴지나 껌조를 버리는 운전자, 담장 위나 공원벤치에 빨대가 꽂혀진 채 버려진 빈 음료수 컵을 볼 때는 우리의 젊은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기중이나 길거리에 나붙은 크고 작은 전단지, 유원지 곳곳을 방황하는 쓰레기 등이 나를 슬프게 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양심 브레이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피해가 될 것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무단횡단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새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옥'하고 부아가 치밀어도 '그러면 안 되지'

'눈치껏 살면 돼, 뭘 그래'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듯 내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숨 한 번 내 쉬어볼 일이다.

한 걸음 나아가 모두의 유익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내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내 인격을 지켜내야 한다.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때마다 양심브레이크를 힘 있게 밟아 지켜내야 한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권한은 누구에도 없다.

이제부터 양심 브레이크를 잘 쓰는 모범운전사가 되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해 본다.

희심

브레이크 없는 차 달리는 것 비극의 시작이외다

양심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또한 비극의 시작이외다

브레이크 점검하는 운전자처럼 양심을 돌아보는 쟁쟁쟁깅 있어야할 것이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알아두자



김나영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완벽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지점으로부터 몇 개의 위·아래층 까지가 가장 위험함으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또 고층건물에는 피난할 수 있는 가구(완강기, 피난포프, 피난사다리 등)가 있으므로 이 가구들을 사용하여 탈출한다.

특히 저층에 사는 경우 커튼, 이불보 등을 묶어서 피난할 수 있으니 평상시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젖은 타올이나 시트 등으로 문이나 에어컨, 각종 통풍장치의 바람구멍을 막아 연기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연기 속을 통과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짧게 호흡하면서 출입구나 피난계단을 이용해 침착하고 질서 정연하게 대피해야 한다.

최근 각종 화재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상가 등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불을 피하기 위해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례 등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런 곳은 나름대로 대부분

비상구를 통해 탈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전한 곳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피난해야 한다.

만약 위급 할 때는 건물의 배관 등을 타고 내려오거나 커튼 등을 연결해 밧줄을 만드는 등 대피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9대원이 도착하기 까지 수건 등에 물을 적서

서 마스크를 하고 앞뒤려 기다리며 소방관이 도착했을 경우 수건 등을 흔들며 구조요청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화재시 피난방법을 익혀 두면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둘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 규격에 맞는 불판을 사용한다.

셋째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텐트를 고정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야광으로 된 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가장 흔히 조심 해야하는 안전수

칙 4가지다. 캠핑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안전수칙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조심해야겠지만 최소 이 수칙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캠핑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끝났을 때까지이다.

함께 동행한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캠핑을 즐기도록 해보자.

안전한 캠핑 최소 4가지 수칙 준수



이승환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한 캠핑은 아직까지 캠핑장 예약이 꽉 차고, 캠핑장비가 품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캠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정도다.

캠핑이 유행하는 가운데 캠핑카 또는 텐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난방시설을 이용하다 질식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사고 없는 캠핑을 위해 안전수칙을 한번 알아보자.

첫째 텐트 내부에서 난로 등 난방·온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 총장...223-4123
무등...224-4188
동부...234-4235
학동...225-0651
광천...374-2120
화정...374-3713
금호...376-7153
쌍촌...371-9584

- 상무...381-5310
서부...651-0004
송암...362-4102
농성...362-4102
진월...671-7276
봉선...675-5530
중앙...521-5640
중흥...433-1503
양산...574-3745
문암...521-4270

- 오치...261-9461
문흥...261-9462
일곡...573-3200
동운...525-8894
두암...266-1920
철단...971-1920
신창...955-0451
월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 목포...010-8718-1234
순천...010-9656-1383
광양...010-9656-1383
나주...010-3644-7272
담양...010-3602-3650
곡성...010-2632-4504
구례...010-8597-0053

- 보성...010-3626-4776
화순...010-2430-50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4217-9480
강진...010-3775-2369
장성...010-3610-7824

- 무안...010-9271-8517
여수...010-8587-2288
함평...010-3095-5842
영암...010-4604-3742
진도...010-8525-4567
해남...010-3471-6542
광산...010-7613-4320